

세계일보

이선아씨, '2008 주목해야 할 젊은 안무가' 지명

독일 무용잡지 '발레탄츠', 11월 14~16일 LIG아트홀에서 국내 첫 공연도

입력 2008-09-22 16:19:20, 수정 2008-09-22 16:38:13



세계적인 무용잡지 독일의 발레탄츠로부터 '2008 주목해야 할 젊은 안무가'에 지목된

이선아씨 공연 장면.

무용수 겸 안무가 이선아(30·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2년)씨가 독일에서 간행되는 세계적인 무용전문지 '발레탄츠(Ballettanz)' 발레탄츠는 이씨를 '주목해야 할 젊은 안무가'로 지목하면서 "움직임 그 자체를 재창조하여 손끝에서 발끝까지 이용할 줄 아는 기교와 인간의 깊은 지난해 1월 일본 요코하마 댄스 콜렉션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씨는 그 후 프랑스 국립안무센터를 비롯해 영국, 네덜란드, 핀란드, 우크라이나, 독일 이씨는 오는 11월 14~17일 LIG아트홀에서 열리는 '2008 영 아티스트 클럽'(YAC) 공연으로 국내 첫 무대를 갖는다. 홍혜전, 이소영과 함께 열리는 조정진 기자 jjj@segye.com